

금감원-보험업계 “보험사기, 무관용 원칙 강력 대응”

끊이지 않는 보험사기(하)근절대책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보험사기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신고 기한을 연장하는 등 엄단에 나서기로 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등과 함께 지난 1월12일부터 운영하던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10월까지 연장한다.

당초 만료는 3월이었으나, 금감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 기간에 맞춰서 관계 기관과 공조를 강화하고 신속한 보험사기 적발에 만전을

‘실손 사기’ 포상 오는 10월까지 연장

경찰청 특별단속 기간 맞춰 공조 강화

대상 자동차 범행 확대...포상금도 ↑

“대국민 홍보·피해자 구제 노력 만전”

을 기하기 위해 연장을 결정했다. 또 기존 신고 대상은 보험 사기가 의심되는 전국 병원(한의원, 한방병원 포함)과 의사, 브로커 등 실손 보험에 그쳤으나, 자동차 보험을 악용한 고의 사고 운전자나 브로커,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 등

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포상 금액 지급 대상도 확대됐다. 5천만원은 신고인이 병·의원 관계자인 경우로 기존과 동일하나 3천만원은 병·의원 브로커일 때에서 자동차 정비·렌터카 업체 관계자까지 해당한다.

1천만원도 환자 등 병원 이용자에서 차주와 운전자, 동승자까지로 지급 범위가 늘어났다.

신고는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 신고센터에 전화와 인터넷, 우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관계 당국은 신고인이 제출한 구체적인 물증 등을 토대로 실제 혐의가 상당해서 수사로 이어지고 그가 참고인으로 진술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된다. 또 신고인의 신분이 불분명하거나 확인을 거부하고, 해당 내용이 이미 조사나 수사 중이거나 조치가 완료된 사안이어도 안 된다.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수령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은 제보 사건 중 증빙의 구체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 신속히 조사가 착수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등 속도감 있게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고와 수사 의뢰·진행 등 일련의 과정

이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경찰 당국과 긴밀히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감원은 일반 국민에게 보험 사기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생·손보험회 등 유관 기관과 협력해 대국민 홍보 등 사전 예방적 활동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인한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 보험료를 적극 환급해 피해자 구제 노력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남들도 다 하는데”라는 안일한 생각 대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국민에게 적극 전달해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재영기자



“갑질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 22일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후문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등 지역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남대학교는 ‘갑질 피해’ 대학원생의 사망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민변 광주전남지부 제공>

‘옛 전남도청’ 5월18일 정식 개관

복원협의회 확정...추모공간 등 보완
특별전도 개최...운영 주체는 못 정해

복원 후 임시 개관이 이뤄졌던 옛 전남도청이 오는 5월18일 정식 개관한다. 하지만 운영 주체를 끝내 정하지 못해 향후 혼선 등이 불가피해 보인다. 22일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광주 동구 광산동 옛 전남도청 세미나실에서 ‘제17차 복원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정상원 옛전남도청복원추진

단장, 박용수 광주시 민주인권평화국장, 정영일 옛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식 개관일과 전시 콘텐츠 보완 방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옛 전남도청은 다음 달 18일 오전 10시 제4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당일 개관할 예정이다. 운영 시간은 임시 개관 때와 같이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월요일은 휴관한다. 관람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옛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임시 개관 과정에서 제기된 추모 공간 부족 지적과 관련해 상무관 내

부에 별도 추모 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 외부 바다에 설치된 추모비 10개가 눈에 잘 띄지 않고 훼손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화강석 기단과 추모 표지판 등 요소를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시 콘텐츠 일부의 역사적 사실 불일치 문제는 검수위원 의견을 반영해 수정을 검토 중이다. 개관에 맞춰 민원실 1층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시간’을 주제로 기억과 기록, 트라우마 치유 과정, 기증 자료 등을 담은 기획 특별전 공간도 마련한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도 운영 주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는 2023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됐으며, 2월28일부터 4월5일까지 임시 개관했다. 이 기간 9만5천여명이 방문했다. /이연상기자

토지 매매대금 부풀려 뒀돈 ‘꿀꺽’...18명 검찰청

광주 남부경찰, 전 지주택 조합장 등

부동산 재개발 과정에서 토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뒀돈을 챙기거나 자격 없이 중개 행위를 하는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한 이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재개발 추진위원장 A씨 등 관계자 1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전 지역주택조합장 A씨 등 관계자 15명은 광주 지역 재개발 사업지 내 일부 필지의 토지 매매대금을 부풀려 계약하고 ‘리베이트’ 구조

를 만들어 시행사로부터 뒀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필지 2개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등 9건 수사를 이어가던 중 계좌 추적을 통해 총 9개 필지의 단가 조작 정황을 포착했다. 또 총 96개 계좌를 정밀 분석해 아파트 입주권 등 범죄수익금 약 18억2천만원을 환수했다. 이와 함께 자격 없이 불법으로 중개 행위를 이 기간 B씨 등 2명과 온라인 게시물 등을 이용해 ‘집값 띄우기’ 불법 광고를 한 C씨 등 총 3명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형우기자

냉동창고 화재 토치 사용 30대 구속 송치

60대 지시자는 조사 중

소방 대원 2명이 순직한 원도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 당시 예측시 작업을 했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원도경찰서에 따르면 업무상 실화 혐의를 받는 불법체류 신분인 중국인 A(30대)씨를 전날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15분께 원도군 군의면 한 수산물 가공업체 냉동창고에서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한 예측시 작업을 하다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토치를 사용했는데, 화재는 샌드위치 패널 구조의 벽에 불꽃이 튀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가 작업을 시킨 시공업체 대표 B(60대)씨에게 연락하면서 그는 현장에 들어왔고 직접 진화해 보려 했으나 여의치 않아 소방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는 소방 당국에 의해 신고 접수 약 3시간 만에 완진됐는데, 이 과정에서 불을 끄려 들어간 소방 대원 2명이 고립돼 화마에 숨졌다. 경찰은 자리를 비운 B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며 업무상실화 혐의를 적용해서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원도=윤보현기자
피의자 대기실서 숨진 20대여 ‘청산염 중독’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던 숨진 20대 여성의 사인이 독극물 중독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22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A(20대·여)씨의 사인이 ‘청산염에 의한 중독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구두로 통보받았다. A씨의 혈액과 위는 물론, 소지하고 있던 텀블러에서도 청산염 성분이 검출됐다. /안재영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철거 전문가
광주·전남 전지역 가능

- ✓ 철거 경력 20년!
- ✓ 광주·전남 전 지역 출장 가능
- ✓ 상가, 주택, 간판, 내부 철거 등
- ✓ 당일 견적 OK / 소규모 철거도 가능
- ✓ 안전·정리+깔끔함까지 책임집니다.

현주 제로레벨 ☎ 상담전화 010.9842.5570